



롯데바이오로직스, 한마음공원서 플로깅 봉사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9일 인천 선학동 한마음공원 일대에서 임직원 봉사단 'L B:하트'가 플로깅을 실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인천 한마음공원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봉사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한국타이어, IDEA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생산 부산물을 재활용한 제품과 미래 이동 기술로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2026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리무브'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휠봇2'가 각각 본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구(球)형 모듈러 로봇틱 휠 시스템 '휠봇2(WheelBot2)',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리무브(re:move)'의 성과물 중 '업사이클 가구' /한국타이어



파라타항공, 中 선전 노선 신설… 내달 9일 운항

파라타항공이 중국 첨단산업 도시 선전으로 하늘길을 뚫는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갖춘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기업 출장객과 자유여행객 수요를 함께 공략한다. 파라타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중국 선전 바오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정기편을 11월 9일부터 운항한다고 30일 밝혔다. 파라타항공 항공기. /파라타항공



한샘, KCSI 조사 가정용·부엌 가구 1위 '2관왕'

한샘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가정용 가구와 부엌 가구 부문 1위를 기록해 2관왕에 올랐다. 30일 한샘에 따르면 부엌 가구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업계 내 독보적인 입지를 증명했다. 프리미엄 키친 라인 '키친바호'와 시그니처 키친 라인 '유로키친' 등 부엌 가구의 뛰어난 품질과 정밀한 설계 능력을 인정받아 통산 18회 1위를 기록했다. /한샘

에이피알, 24억 상당 현물 기부

에이피알이 소외된 이웃의 일상을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4억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약 계층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부 물품에는 자사 의류 제품 등이 더해져 실용성을 갖췄다.

우선 국내 여성 이용 사회복지시설과 종합복지관을 통해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에 전달된다. 해외 역시 몽골, 말라위 등 구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나눔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국내 기후테크 '또 진출' 가교 역할

기후테크 글로벌 피칭 세션 개최 말레이서 5개 연구팀 기술 발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국내 기후테크 연구팀과 해외 투자자·기업을 연결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RMI·Third Derivative(D3)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피칭 세션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기후테크 행사 '에너지 테크 서밋 아시아 2026'에서 열린 이번 세션에는 그린 소사이어티 연구팀 5개 팀과 ITAP 스타트업 5개사가 참여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아시아 기후기술 스타트업 글로벌 파트너십'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ETS Asia 피칭세션 단체 사진.

/현대차정몽구재단

그린 소사이어티 연구팀은 해양 탄소포집과 이끼 기반 토양 복원, 태양광 인버터, 수소 생산용 중공사막, 운송에너지 변환 기술을 선보였다. 사전 컨설팅을 거쳐 기술의 차별성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현지 투자자·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실증 협력과 투자 유치 가능성을 논의했다.

재단은 연구팀별 후속 미팅을 지원하고 RMI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실증과 수요처 발굴, 투자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이번 피칭 세션은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그린 소사이어티 연구팀의 기술을 글로벌 시

장과 투자 네트워크에 연결한 자리"라며 "기후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검증되고 투자와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고객만족도 9개 부문 1위

TV·휴대폰 29년 연속 정상 생활가전도 6개 부문 1위

삼성전자가 가전과 모바일에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능을 확대하며 고객만족도 최다 부문 수상 기록을 25년째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에서 9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은 122개 산업군, 455개 기업이다.

조명호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KCSI 최다1위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제품 기술력과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말했다.

KCSI는 KMAC이 1992년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객만족도 조사다. 제품 성능과 서비스 등 이용 경험을 평가하는 요소종합만족도에 50%, 전반적 만족도에 30%, 재구매·이용 의향에 20%의 비중을 둔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조사한 뒤 6점과 7점을 준 응답자의 비율을 지수화한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기록을 보면 TV와 휴대폰이 각각 29년, PC가 2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생활가전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8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냉장고와 세탁기가 각각 17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김치냉장고는 16년, 에어컨은 14년째 1위를 유지했으며 무선스틱청소기와 건조기도 각각 6년,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올해 TV와 모바일 제품에 적용한 AI 기능을 주요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TV의 '비전 AI 컴패니언(Vision AI Companion)'은 시청 중인 콘텐츠와 질문의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에는 일상과 관심사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Now Brief)'와 일정 등록 등을 안내하는 '나우 넛지(Now Nudge)'를 적용했다. PC의 경우 스마트폰·태블릿과의 연결성과 긴 배터리 사용시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인사 ◆한국신용평가 ◇승진△ 신용리스크모니터링본부장 위지원

◆머니투데이방송(MTN) △전남광주 취재본부 국장 이용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김성근 △중점조사기획단장 최장관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의정관 하인호 ◇국장급 승진△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이윤경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채경아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원면직 유정기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이형민 △감염병관리과장 권근용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국장 이명선

◆대전 중구 ◇4급 전보△기본사회기

획국장 윤영건 △돌봄복지국장 이연숙(조직개편) ◇4급 승진△문화경제국장 문화선

부음 ▲문오순(향년 82세)씨 별세, 이경희씨 모친상, 차상근(메트로신문 산업부 부국장)씨 장모상, 차혁우·차인서·차혜원씨 외조모상 = 29일 오후 8시, 부산 괴정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월 1일 오전 10시, 장지 양산 천불사. ☎ 051-293-4382

▲허창일(향년 92세)씨 별세, 함정옥씨 배우자상, 허형범·경주·경희·경미씨 부친상, 이준화·류남현(팜센사이언스 부회장)·김홍식씨 빙부상, 한소영씨 시부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월 2일 오전 7시 15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6915

한진, 정책기획담당 부사장직 신설

최종석 전 안전보안실장 선임 공직·언론·기업 현장 두루 경험

한진이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사장직을 신설하고 최종석 전 안전보안실장(CSO)을 신임 정책기획담당 부사장(사진)으로 선임했다.

30일 한진에 따르면 최 부사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코벨대 노사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고용노동부 사무관으로 시작해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고용노동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전문위원을 거쳐 한진의 안전보안실장(CSO)으로 재직하며 사내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책기획담당을 겸직하며 회사의 대내외 경영 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최 부사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대외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직과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 체계 최적화 및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한진의 ESG 경영 내실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최 부사장은 공직과 언론, 기업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과 경영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부사장직 신설·선임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적인 안전·노사문화 확립 등 ESG 경영을 심화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아시아나, 국제선 마일리지 특별기 운영

일본·중국·동남아 5개 노선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마일리지 소비 촉진을 위해 일본·중국·동남아 5개 노선에 국제선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항한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번 국제선 마일리지 특별기는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일본 노선(도쿄·오사카) 26편,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국 노선(베이징) 26편,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남아 노선(하노이·마닐라) 21편, 총 73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항공권 예약은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상황에 따라 유상 항공권으로도 구매 가능해 고객 선호에 따라 마일리지 항공권과 유상 항공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으로 일본·중국 노선 이코노미 클래스 1만 5000마일·비즈니스 클래스 2만 2500마일, 동남아 노선 이코노미 클래스 2만 마일·비즈니스 클래스 3만 마일이 공제된다. 단 승시기간에는 바스기 대비 50%가 추가 공제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확정됐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통합 이후에도 보너스 좌석 공급 비중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